

# 국내 최초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1500여 점 ‘가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산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이 지난해 12월 26일 개관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9세기 말 개항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국립 근현대사박물관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경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개관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제 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년 기념 8·15 경축사’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며,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추진해 온 건립사업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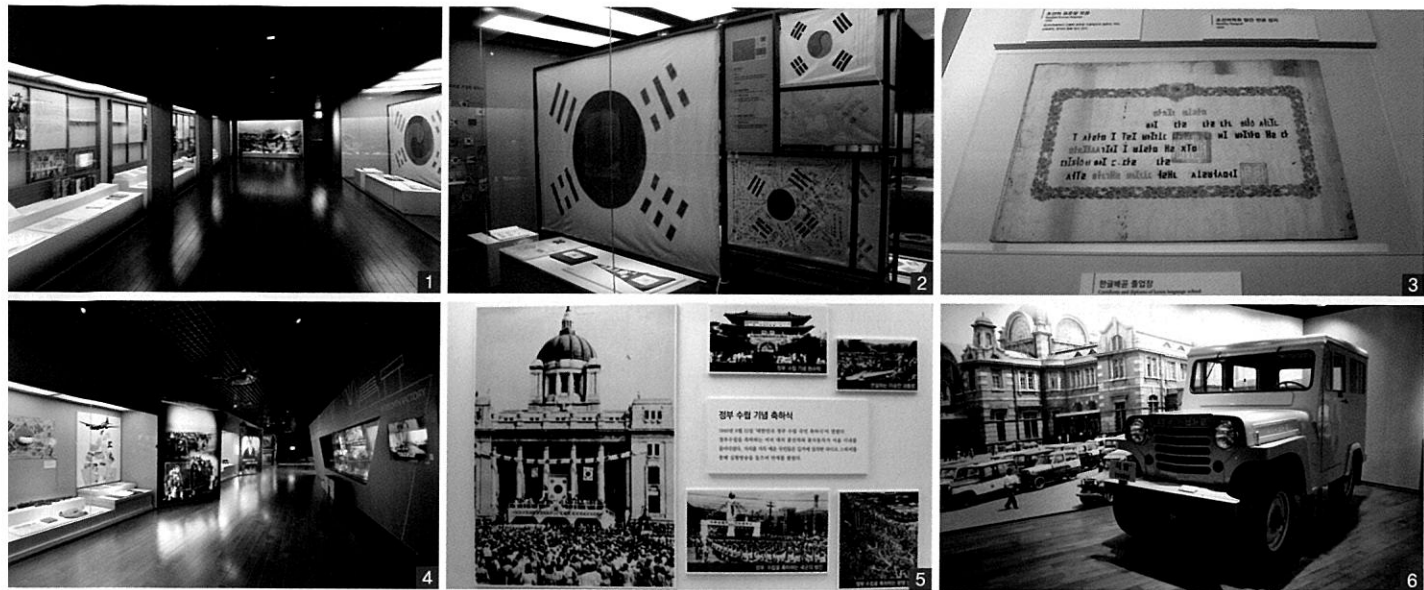
박물관 건립 및 전시의 기본구상 마련과 사업추진은 역사, 외교안보, 경제사회,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인사 총 29명으로 구성된 박물관건립위원회에서 총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건립추진단에서 실무를 수행해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규모는 부지 6445㎡(1950평), 건축 총면적 1만734㎡(3247평)로 지상 8층 건물에 4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강의실, 카페, 문

화 상품점,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종로구 세종로의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별관부지 일부를 증축해 건립했다.

## 대한민국 태동에서 세계로의 도약까지 4개 전시실로 구성

개항기부터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는 상설전시실은 3층에서 5층까지 약 3000㎡의 넓이에 약 1500여 점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3층 대한민국의 태동(제1전시실)에서부터 4층의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제2전시실), 5층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제3전시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제4전시실) 등 총 4개의 전시실을 자연스럽게 동선에 따라 관람하게 된다.



제1전시실은 대한민국의 태동이라는 대주제 아래 자주적 근대국가의 꿈과 좌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1945년 8·15 광복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이 세계에 문호를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1945년 독립에 이르는 시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태극기, 3·1 독립선언서, 서유견문 등이 있다.

제2전시실은 대한민국의 기초 확립이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과 전후복구, 근대국가 토대 구축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194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시작으로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 그리고 어려움을 이어내고 전후 근대국가의 토대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된 4·19 혁명도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정부수립기념축하식 사진, 초등학교 책상 및 교복, 시발자동차 등이 있다.

제3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경제개발과 산업화, 변모하는 도시와 농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식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경제성장 and 민주주의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알 수 있다. 주요 유물로는 대한민국 1호 고유모델 자동차 현대 포니, 전태일 열사와 근로기준법,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등이 있다.

제4전시실은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 경제선진국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등으로 구분해 전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우리의 모습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국내 최초 개발 휴대전화,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반도체 등이 있다.



1. 1전시실 전경 2. 다양한 태극기. 왼쪽 태극기는 1890년경 사용된 데니태극기다. 3. 한글배본 (조선어강습소) 졸업장 4. 2전시실 전경 5.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기념식 자료 6. 1950년대 시발자동차 7. 3전시실 전경 8.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물 9. 1960~70년대 영화포스터 10. 4전시실 전경 11. 국내 최초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휴대폰 12. 한국문화와 한국학자료들



13



14



15



16

13.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체험학습공간인 '우리역사 보물창고' 14. 첨단전시방법이 적용된 3.1운동 코너 15. 3전시실과 4전시실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몄다. 책상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1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로비

### 어린이 역사체험 학습공간도 조성

박물관 1층에는 2개의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요한 역사적 순간과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인 '대한민국의 재발견' 과 어린이를 위한 역사체험학습공간인 '우리역사 보물창고'가 마련돼 있다. 특히 '우리역사 보물창고'는 직접 만지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근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 첨단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을 활용해 설계한 새로운 전시기법 적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아날로그의 감수성과 디지털의 범용성을 함께 갖춘 디지털 박물관이다. 이를 위해 첨단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을 활용하여 설계했으며 다양한 새로운 전시기법이 적용됐다.

3·1 운동 코너에서는 바닥에 있는 글자를 밟으면 벽면의 해당 위치로 글자가 이동하는 무빙텍스트 기법이 활용됐는데, 독립

선언서에 담긴 '자유', '평등', '독립', '공존', '평화' 등 근대 사상의 주요한 가치들을 살펴볼 수 있다.

8·15 광복 전시코너에서는 2개의 영상화면을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와 사진·영상자료 등을 결합한 입체 영상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코너에서는 12m 길이의 매직비전(벽면 영상과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입체영상 구현)을 통해 광복 이후 남북분단, 5·10 총선거, 제헌국회, 정부수립 과정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6·25 전쟁 코너에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협조로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의 유품을 전시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있으며, 전후의 판자촌을 재현해 당시의 어려운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전시 안내에도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관람객은 자신이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태블릿PC 그리고 전시관 내에 부착된 큐알(QR) 코드 등을 통해 전시관람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람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문의** : 02-3703-9200